

세종시, 태양광 전력 생산 돌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09년부터 세종시에서 추진해온 1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전력생산에 들어갔다고 8월6일 발표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곳은 대전 유성구-세종시 사이의 자전거도로(발전량 2552MWh), 수질복원센터(2416MWh), 쓰레기매립장(2148MWh) 등으로 태양광 설치사업에는 한국서부발전이 참여했다.

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발전량은 설계용량 6202MWh에 비해 914MWh 많은 7116MWh에 달한다.



행복청은 발전시설 가동으로 25억원의 전력판매 수입과 2642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청은 1차 태양광사업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2차사업 추진을 위해 9월 발전기업 및 태양광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한 뒤 10월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손운선 행복청 녹색도시환경과장은 “세계적인 명품도시의 첫번째 조건은 저탄소·친환경 녹색도시”라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비롯해 LED(Light Emitting Diode) 가로등 설치, 스마트 그리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2/08/06>